

《한겨레》 안중주 심의위원이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한울)을 펴냈다 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반가움에 앞서 '이것 또 조종하게 넘어가지 않 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사실 필자는 이 책과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 의사 폐업·파업 당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사무실에서 상근 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안중주 위원 의 요청으로 인의협 홈페이지에 이 책의 초벌본이라 할 수 있는 글들을 의사 폐업·파업이 끝날 때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연재했다. 당시 인의 협 게시판에는 '의권수호파' 의사들과 시민들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 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인의협 게시판뿐만 아니라 주요시민단체 게시 판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다.

건강권 담론 옹호하고 전문가 우월주의 허구성 폭로해

의료대란은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의권 담론' 과 시민들의 '건강권 담론' 의 치열한 공방 전의 과정이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연재됐던 안중주 위원의 글은 사실 언 론인의 깊은 사색을 통한 글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민층이 의사들에게 되돌려주는 공격용 '무기' 로 인식됐다. 필자가 보기에 이 글은 당시 폐업·파업을 주도한 의사들의 '의권천부설' 이나 '전문가 우월주의' 에 맞서 '건강권 담론' 과 '국민의 전문가에 대한 우위' 를 지키려는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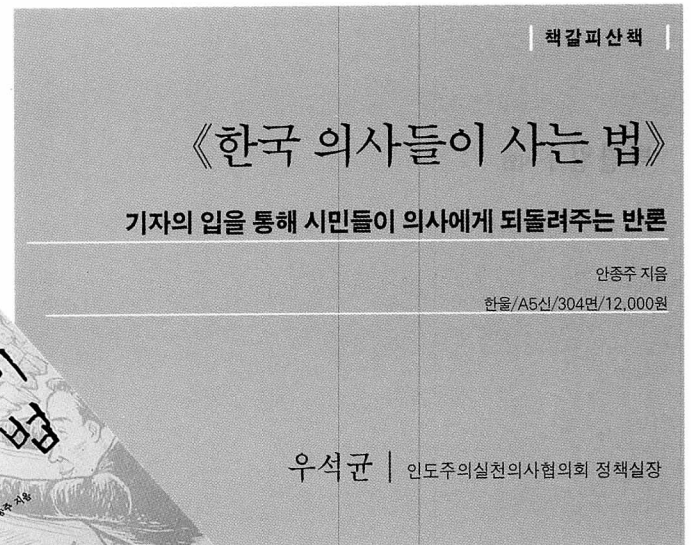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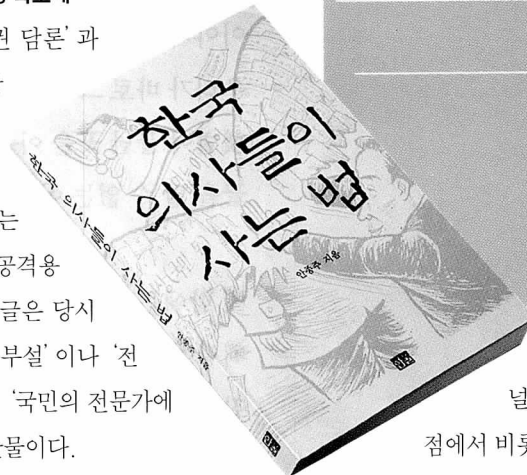
이 책이 출간되고 소개 글들이 나오자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은 다 시 한번 의사-시민간 공방의 와중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신문 <오마이 뉴스>에 게재된 서평에는 이례적으로 무려 7백여개의 답글이 달렸다. 이어 내과 개원의가 반론하고, 인의협 소속 의사가 재반론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여전히 보건의료영역에서 전문가 담론과 시민 담론 사이 에, 또 의사들과 시민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인의협 게시판에서 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건강 권담론을 옹호하고 전문가우월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강력한 '무 기' 다. 지은이는 1부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에서 의료대란 속에 행해 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사협회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한다. 3부 <의사 파업과 의약분업 다시 보기>에서는 의료대란에서 보 여준 의사들의 '추한' 행동들을 낱낱이 폭로한다. 바로 이런 점들에서 이 책이 논쟁적이고 투쟁적임을 잘 알 수 있다.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이정표 구실해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그런 폭로와 논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은 이는 2부 <한국 의료 벼랑 끝에 서다>와 4부 <한국 의료 희망 말하기> 에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그 처방을 제시한다. 다만 주제별 로 비교적 짧은 글들의 묶음이다 보니 체계적인 분석과 해법이 제시되

이 책은 2000년 의사 폐업·파업 당시 인의협 게시판에 게재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폐업·파업을 주도한 의사들의 '의권천부설' 이나 '전문가 우월주의' 에 맞서 '건강권 담론' 과 '국민의 전문가에 대한 우위' 를 지키려는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극소수 의사들의 치부를 일반화했다는 비판도 따르지만, 의사들에게 충분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물론 이것은 저널리스트의 감각이 살아 쉽게 읽힌다는 이 책의 장점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모자람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이 극소수 의사들의 치부를 일반화했다는 비판이나 의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글이 특별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진국의 평에서와 같이 의사들이 자기성찰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환자들은 의사들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 진다. 이 책은 환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의사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향한 길고 긴 여정에서 세운 하나의 이정표다.

보건의료영역의 전문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은 의사들의 존재조건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도 극복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담론 형성과 강화를 통해서도 극복해야 한다. 아니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또한 이런 시민적 담론과 그로 인해 조직된 '자각한 시민의 힘' 으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학자나 전문가들의 학문적 글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쓴 대중적인 글로서는 최초라 할 안중주 위원의 글이 이정표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우석균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가정의학전문의로 성수의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인의협 정책실장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다.